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을 앞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근로자휴양호동들과 료양호동들, 러판들과 실내온천장, 야외온천장, 종합봉사시설들과 승마공원, 스키장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10월 23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이후 당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집행한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건설자들이 지난번에 지적한 문제들을 바로잡으면서 건축감공사를 섬세하게 진행하여 치료 및 료양구획과 스키장구획을 비롯한 모든 건설대상들을 질적으로 완공해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천문화휴양지 건물들을 천리마타일 공장에서 생산한 각이한 규격과 색깔의 타일로 마감하였는데 새로운 형식으로 보기 좋게 잘 붙었다고, 전번에 지적해준대로 건물들의 로데간간을 흰색으로 칠하니 한결 산뜻하고 세련되어보인다고, 모든 건물들이 불수록 멋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번에 실내온천장을 돌아보면서 열대나무장식물을 바꾸라고 지적하였는데 인민군군인들이 소나무장식물로 고쳐놓았다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모두 진짜 소나무같다고, 형상을 세부적으로 더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실내온천장에



채광창을 더 내며 수영장조약대와 정각을 철거하고 내부형성을 다시할데 대한 과업, 개별유수조 주변에 깔아놓은 인공잔디대신 나무바닥재로 마감할데 대한 과업, 야외온천장의 닭알삶는 장소에 조미료를 놓아줄수 있게 벽장을 설치할데 대한 과업, 야외온천장으로 가는 보행통로에 난방관을 묻고 온천퇴수를 보장할데 대한 과업, 스키장주로의 경사가 급한 부분의 주로폭을 넓혀 안전성을 보장할데 대한 과업 등 당에서 제시한 과업관철정형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을 하였다고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천문화휴양지 종업원들의 살림집난방을 온천퇴수로

보장하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살림집에 입사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온천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니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운영비품들을 생산보장하게 된 단위들에서 미진된 가

구들과 설비들을 빨리 제작하며 설계상 요구대로 가구배치를 잘할데 대한 문제, 침실에 설치한 해발가림막을 카렌으로 교체할데 대한 문제, 호동들의 수용인원에 따라 식당에 식탁과 의자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할데 대한 문제, 상점들의 상품진렬형식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불고기식당에 꾸려놓은 식탁들을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전용구이설비들을 설치한 식탁들로 바꾸며 식당의 크기에 맞게 식탁들을 더 배치할데 대한 문제, 온천물량이 많다고 망탕 량비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물공급을 교차식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스키장정점에 건설한 봉사시설의 능력을 확장하여 스키장

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스키를 타는 모습들을 부감도 하고 여러가지 봉사도 받을수 있게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온천문화휴양지운영과 봉사준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점들을 지적하시고 퇴치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러판의 온천물놀이장, 숙소들의 개별온천욕조를 비롯하여 휴양지의 수백여개에 달하는 온천욕조들과 위생기구들에 대한 소독과 관리를 규정의 요구대로 특별히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천문화휴양지에 건설하고있는 승마공원을 빨리 완공하여 근로자들이 이곳에 와서 스키도 타고 말도 타며 여러가지 체육문화생활을 즐기고 온천욕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지구에 전망적으로 팔도장도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준공기일이 박두한것만큼 봉사들을 담당할 단위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봉사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책임적으로 하여 봉사활동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지휘부에서 당에서 제시한 완공날짜까지 미진된 공사를 어김없이 결속하고 준공식을 보장하기 위한 마감공사조직과 지도를 더욱 짜고들여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천문화휴양지 건물들을 천리마타일 공장에서 생산한 각이한 규격과 색깔의 타일로 마감하였는데 새로운 형식으로 보기 좋게 잘 붙었다고, 전번에 지적해준대로 건물들의 로데간간을 흰색으로 칠하니 한결 산뜻하고 세련되어보인다고, 모든 건물들이 불수록 멋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천문화휴양지 종업원들의 살림집난방을 온천퇴수로 보장하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살림집에 입사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온천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니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운영비품들을 생산보장하게 된 단위들에서 미진된 가 구들과 설비들을 빨리 제작하며 설계상 요구대로 가구배치를 잘할데 대한 문제, 침실에 설치한 해발가림막을 카렌으로 교체할데 대한 문제, 호동들의 수용인원에 따라 식당에 식탁과 의자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할데 대한 문제, 상점들의 상품진렬형식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불고기식당에 꾸려놓은 식탁들을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전용구이설비들을 설치한 식탁들로 바꾸며 식당의 크기에 맞게 식탁들을 더 배치할데 대한 문제, 온천물량이 많다고 망탕 량비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물공급을 교차식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스키장정점에 건설한 봉사시설의 능력을 확장하여 스키장

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스키를 타는 모습들을 부감도 하고 여러가지 봉사도 받을수 있게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온천문화휴양지운영과 봉사준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점들을 지적하시고 퇴치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러판의 온천물놀이장, 숙소들의 개별온천욕조를 비롯하여 휴양지의 수백여개에 달하는 온천욕조들과 위생기구들에 대한 소독과 관리를 규정의 요구대로 특별히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천문화휴양지에 건설하고있는 승마공원을 빨리 완공하여 근로자들이 이곳에 와서 스키도 타고 말도 타며 여러가지 체육문화생활을 즐기고 온천욕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지구에 전망적으로 팔도장도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준공기일이 박두한것만큼 봉사들을 담당할 단위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봉사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책임적으로 하여 봉사활동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지휘부에서 당에서 제시한 완공날짜까지 미진된 공사를 어김없이 결속하고 준공식을 보장하기 위한 마감공사조직과 지도를 더욱 짜고들여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천문화휴양지에 건설하고있는 승마공원을 빨리 완공하여 근로자들이 이곳에 와서 스키도 타고 말도 타며 여러가지 체육문화생활을 즐기고 온천욕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지구에 전망적으로 팔도장도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준공기일이 박두한것만큼 봉사들을 담당할 단위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봉사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책임적으로 하여 봉사활동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조선의 강대함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승승장구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 불패의 위력에 경탄을 표시하며 여러 나라 인사들이 수많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보내어왔다.

로세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가장 훌륭한 모든것을 그대로 체현하신 국가활동가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믿음직하고 확신성있게 령도하시어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위업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불패의 사회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은 세계에 높이 떨쳐지고있다.

최고령도자각하에 의하여 조선의 국가방위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김정은각하는 불철주야의 령도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동지의 한생의 념원이었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향도하시어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팔리아지 부 공식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인미답의

조행길을 헤치시며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회주의건설과 혁명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자주성을 실현하고 자본의 예측에서 벗어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 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주체사상연구소 조. 탄자나아 전 국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조. 김정은동지는 사상리론적예외와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세련된 령도자이시다. 전체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존경을 받으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 가신다고 격찬하였다.

도이칠란드 드레즈덴주체사상연구소 조. 책임자 조. 오를 진보적 인류는 커다란 경탄속에 사회주의의 조선을 바라보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강대함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력의 뚜렷한 과시이라고 칭송하였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조. 책임자 조. 이렇게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원칙에서 사회주의의 조성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공고발전시키시였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 나가신다.

김정은동지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강국건설에서 언제나 새로운 승리만을 이룩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거래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오늘날 민족자주에 충실하고 외세의존을 배격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동족과의 화해와 단합을 외면하고 외세만 바라보면서 주대없이 추종해나간다면 나라의 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없다.

그런데 남조선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평화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없이 이루어질수 없다》, 《북도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는 외세의존정책을 버리지 않고있다.

이것은 민족의 리익과 운명을 안중에도 없이 민족내부문제를 외세에게 통째로 내맡기는 사대매국행위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는 그 누구의 승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나가야 한다.

민족운명의 주인은 그 민족자신이며 민족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갈 힘도 자기 민족에게 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내부문제로서 여기에 외세가 끼여들 하등의 명분이 없다.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곡절많은 북남관계의 력사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한다면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에 난관과 장애만 조성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서도 그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여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강박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것을 약속하였다.

정세긴장의 근원인 외세의와 함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위협천만한 전략자산반입도 마땅히 중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자들은 여전히 간판만 바꾼 외세의와 함동군사연습에 계속 매여달려왔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전투기(F-35A)를 련이어 끌어들이며 조선반도정세를 군사적강경화해로 떠밀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이런 위협천만한 적대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민족자주에 충실하고 외세의존을 배격하는데 민족문제해결의 넓은 길이 있다.

본사기자

김현일

# 조선의 새로운 발전 속도

《단숨에!》  
공화국의 발전속도와 《단숨에!》라는 이 말은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오늘이 다르고 래일이 다르게 변하는 조선은 전체 인민이 만리마를 탄 기상으로 시대를 주름잡고있다.  
조선의 발전속도는 세인의 경탄과 놀라움을 자아낸다.  
비약의 단계들에 굽직한 획을 긋는 국민들이 련이어 펼쳐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지난 4월 삼지연군 읍지구건설현

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러설 자리가 없으며 엄혹한 시련과 난관에 놀리워 답보나 하고있을수는 더욱 없다고, 우리 혁명은 언제나 전진 또 전진하여야 하며 오직 전진만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여기 삼지연군에서 이 진리, 이 지를 현실로 확증할것이라고 하시었다.  
속도는 어떤 저항이나 도전에 부닥치면 좌절되기 마련이고 떠지는데 보편적인 자연현상이다. 그러나 조선의 전진속도는 그

어떤 방해와 도전, 막아서는 장애물도 차하고 멈춤없이 돌진해나가는 속도이며 그 과정에 더욱 빨라지는 기적의 속도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속도로 일컬어지는 마식령속도, 세인의 놀래우는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추동하는 강인도정신...  
이 속도, 이 정신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과감한 돌격전을 벌려나가는것이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에 내걸

은것을 단 한걸음에 내걸으려는 담력과 배짱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어주신 진격의 화살표를 따라 미래를 향해 질풍노도쳐나가는 인민의 모습에 조선의 기상이 비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나에게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나는 이를 악물고 허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현명생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

다시며 애국애족의 길을 걷고걸으신다.  
삼복철강행군, 심야강행군, 초강도강행군...  
그이의 발걸음을 따르는 그 길에서 인민은 물리적힘을 뛰어넘는 위대한 정신적힘을 분출하고 있으며 그 힘이 내는 발전속도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고 련이어 창조되는 조선의 놀라운 사면들을 목격하면서 국제사회에 《조선에 대한 수십년간의 제

재는 무의미하다는것이 실증되었다.》, 《만리마의 발구름소리 힘차게 전진하는 주제조선!》, 《조선이야말로 위대한 힘을 가진 불패의 나라, 전도가 양양한 강국이다.》라고 경탄하고있다.  
힘이 축적될수록, 힘의 세기가 강할수록 속도는 빠른 법이다.  
최근년간만 보아도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사면적의를 가지는 새로운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어

집게 일렁이고있다.  
창공의 삼을 박았다는 소식 전해진지 얼마 안되었는데 어느덧 원공의 시각을 눈앞에 두었다는 희소식이 인민들에게 전해져 행복의 웃음을 더해주고 세상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찬란을 안겨준다.  
공화국의 빠른 진보와 발전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자기 령도자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데 그 비결이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런 령도자, 이런 인민앞에 발전의 지름길이 열리고 강자의 힘이 생기며 그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오늘 공화국이 확증하는 진리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미국의 끈질긴 정치압력과 경제적봉쇄, 군사적위협이 계속되고있는 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따라 승리하며 전진하는것이 바로 북특유의 기상》이라고 동경을 표시하고있다.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자기가 리상하고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빠른 속도로 비약하는것은 이 나라 인민들의 특유한 생존방식, 생활방식이다.  
세월의 뒤를 따르지 말고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인민에게 만족을 안겨줄때 대한 령도자의 뜨거운 호소가 배아리치는 이 땅에서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대사변들이 계속 일어날것이다.  
강력한 군력과 자립적민족경제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인민의 일길에 승리의 령명이 비껴오고있다.  
세상은 인류의 리상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며 이 행성의 전진을 선도하는 조선속도, 변혁속도가 안아올 기적과 대사변을 련이어 목격하게 될것이다.



미려 과학자거리

본사기자 리경월

## ◎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

### 하나의 큰 사변

해방후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발포의 환희가 차넘치던 때였다.  
어느 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녀성인군들로부터 오랜 세월 짓밟히며 살아온 녀성들이 희망찬 새 삶을 안겨주시는 수령님께 감사사를 드리며 새 조국건설에 헌신할것을 결의해나서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남녀평등권법령이

실시됨으로써 조선녀성들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새 생활창조를 위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하나의 큰 사변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모든 녀성들이 낡은 사상과 생활인습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새 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공연관람에 참가할 대상과 공연에 출연할 단체, 공연순서까지 짜주시며 세심히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체 관람자와 공연출

연자들에게 《봄향기》화장품을 비롯한 뜻깊은 선물을 보내주시었다.  
3.8절의 《봄향기》, 그것은 자연이 주는 봄의 향기가 아니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하고있는 녀성들을 가장 아름답게 내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는 《봄향기》였다.

### 류다 른 락 아 소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준비하던 날에 있는 일이다.  
그때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론의된 문제의 하나가 첫머리어린이를 가진 대표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라를 떠날들 기쁨감을 더 많이 날아키울 애국의 마음을 안고 9남매, 10남매의 어머니가 된 녀성들속에 첫머리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다른 녀성들속에도 그런 어머니

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때 감동적인 사랑의 조치가 취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첫머리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대회에 참가할수 있게 속도에 락아소를 내오도록 하시었다.  
속도에 애기어머니들을 위한 류다 른 락아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대표들은 그이의 뜨겁고도 다식하신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었다.

본사기자

## 어머니들의 누리는 복받은 삶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누구에게나 한생토록 사랑하고 잊지 못할 어머니가 있고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존경과 지성을 다한다.  
어머니날에 자식들은 성의를 다하여 어머니를 축하한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향기로운 꽃송이 하나에도 자식들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세월에는 자식들의 운명과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픔으로 열두자락 치마폭을 눈물로 적서 아مان 했던 이 나라 어머니들이었다.  
그런 녀인들이 어머니된 참다운 기쁨과 긍지를 한껏 느끼며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된것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그때부터였다.  
주체50(1961)년 11월 16일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이라고, 어릴 때 어머니한테서 배운것은 일생 동안 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 있는것은 어머니가 해준 말씀, 어머니의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훌륭한 혁명가들로 키워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다고 하시었다.  
어머니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노력을 깊이 헤아려주시며 그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켜주는것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우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가정부

가지고있는것은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하시 때 대회에 참가한 어머니들만이 아닌 온 나라 어머니들이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었다.  
함경남도 영광군 장흥리에 살고있는 귀환한 일본인녀성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바랄수 없는 한성령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랑의 친필도 보내주시고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서는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어머니들에게 남다른 긍지를 안겨주시기 위해 군인들을 한명하명 결례 세우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자식들의 옷과 학용품을 놓고 마음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민들레학습장과 교복, 소나무책가방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마음쓰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공화국의 모든 아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나라의 역군으로 성장하고있다.  
어머니조국의 고마운 손길 아래 수많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자라나고있으니 조국방선을 지켜선 초소의 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살뜰히 돌보아주어 병사들의 어머니로 온 나라가 자랑하는 김포원 녀성이 꽃나기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처녀어머니》와 같이 오직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어머니들의 아름다움 모습은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고있다.  
위인을 모시며 복받은 삶을 누리는 공화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애국의 한길에 땀으로 내세우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며 오늘도 그 길에서 참된 보람을 찾고있다.

김영미

## 승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시고 모든 사색과 활동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데로 지향시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와 류정치과병원, 우류아동병원과 류경안과종합병원, 보건산소공장을 비롯하여 병원들과 보건시설들을 새로 건설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도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지난해 8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의료기구공업에서 선도적역할을 하는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세우실 구상을 펼치시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은 의료부분의 본보기공장답게 그 규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지난 10월 개건중에 있는 이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의료기구제품들을 하나하나 동작시켜보시면서 성능을 세심히 료해하시었다.  
사용하게 될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의료기구들에 대한 그이의 요구성은 매우 높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몸소 진찰침대와 치과종합치료기에 앉아보시고 해면이 좀 딱딱하고 굵은 감이 난다고, 특히 환자들이 치료처를 받을 때에는 오랜 시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앉았게 되는것만큼 머리판을 부드럽게 잘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환자반밀착인 경우 측면 보호틀이 약간 건들거리는것을 비롯하여 정밀도에서 아직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료기구들을 간간히 작동시켜보고 부족점들을 모두 퇴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오래전에 하던 낡은 방법을 퇴치하고 의료기구제작에서 프레스화하고

수지제품의 비중을 늘일 방도도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중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의료기구를 많이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곧 인민들에 대한 관점문제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에 대한 관점문제. 이 땅우에 일떠서인 인민들의 문화휴식이나 살림집, 인민들이 리용하고있는 시설물들은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관이 어려웠다.  
결판 보아서는 새로 만든 무케도전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었다. 무케도전차를 타고다니는 인민들의 립장에 서서 부족점이 없는가를 다같이 꼼꼼히 살펴보고 하시며 오르시었던 무케도전차와 시운전에 참가하시어 그 성능도 가능하여보신 새형의 지하전동차.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작

도인데 자신께서 먼저 라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르시었던 마식령스키장의 삭도며 몸소 그 안전성을 확인해보신 시험비행기...  
외국의 원리도트롬페지에는 《김정은원수령도자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인민의 락원을 가꾸고계신다. 조선에 일떠서는 인민사랑의 창조물마다에 령도자의 손길이 가닿지 않은 곳이 없고 인민을 위해 아로새기신 헌신의 자욱이 어려웠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글이 울렸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어나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인민관이다.  
이처럼 승고한 인민관을 지니신분이시기에 인민의 요구와 리의를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적부무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다.

본사기자 고성호

어머니들이 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되어 자식들의 훌륭한 거물이 되도록 마음써오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승고한 뜻을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2차,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를 발표하시어 어머니들과 녀성들이 지닌 시대적임무를 더욱 깊이 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처녀시절 자기가 썼던 초소에 딸을 세우고 자식들모두에게 군복을 입힌 평범한 어머니의 소행을 대견하게 여기시며 그 가정을 혁명적군인가정으로 내세워주시고 라례치 호나무를 지켜낸 녀성을 잊지 않았고 어린 자식에게 어머니의 고운 모습을 되찾아주시었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있는 날인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하도록 하시고 첫 어머니날을 맞으며 성대한 대회를 열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고결한 총정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시대적본분을 다해나가는 훌륭한 어머니들을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 꽃송이들이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

#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통일애국의 열정을 되찾아 (15)

##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이 명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통일을 갈망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안겨 주신 고귀한 지침이다. 이 명언은 우리 겨레를 참된 삶의 길,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의 길로 이끌어주고 있다.

애국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다. 민족의 운명에 자기의 운명을 복종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이익,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애국의 깊은 애국의 삶이다.

모든 민족성원들이 민족의 운명 개척과 자주적 발전을 위한 길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칠 때 나라와 민족은 부강번영하게 된다.

민족분열의 비극과 아픔속에 살고 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애국의 애국은 민족대단결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위업에 헌신하는데 있다.

그것은 조국통일이 우리 겨레 모두의 삶과 운명, 전도와 관련된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외세의 의화 70여년 지속되고 있는 나라의 분열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

다주고 있다.

수천년 동안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발전하여온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은 결코 둘로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기에 조국통일이야말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최대의 민족사적과제로 된다.

더욱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에 와서도 우리 민족이 계속 갈라져 사는 것은 수치이고 민족의 통일적 발전에도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다.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 길만이 단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다고 통일을 바라기만 해서 는 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겨레의 통일소망은 분계선의 철조망도 녹일만큼 뜨겁지만 소원만 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통일이다.

또 세월이 흐르느라던 자연히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은 통일을 바라는 애국세력과 대결과 분열을 추구하는 내외반통일세력사이의 첨예한 투쟁을 동반하고 있다. 이 힘의 대

결에서 통일에국세력이 분열제국세력을 크게 압도할 때 통일의 아침은 밝아오는 것이다.

그러자면 민족의 피와 땀을 지니고 자주와 통일에 살려는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조국통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서 조국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누구나 통일을 말하고 통일위업 수행에 진정한 애국의 마음과 열정과 맘을 바쳐야 한다.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으며 그 길에서 민족사가 길이 빛날 크나큰 업적을 쌓으셨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민족의 분열을 더없는 아픔으로 여기면서 조국통일에 마음과 뜻을 둔 사람이라야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

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일군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의 길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있어 조국통일위업은 안락의 분열주의세력의 방해책동이 약탈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서도 현대와 세기를 이어 힘차게 전진해올 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될 수 있었다.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는 경에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조국통일의 대헌장이 우리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으며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이 여기에 고 승리의 화적적이다. 온 겨레는 승리의 심심과 락관을 가지고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면서 통일에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아가 할 것이다.

신기복

## 단상 통일전선탑앞에서

얼마전 축섭에 위치한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고 유보도의 정서를 한껏 느끼며 산보하던 나의 발걸음은 통일전선탑앞에서 저절로 멈추어 섰다.

세월은 많이도 흘렀지만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사에 새겨진 민족단합의 뜻깊은 사적을 전하며 오늘도 빛을 뿌리는 통일전선탑이다.

탑신의 앞면 비문판에는 남북분열세력의 의의에 대하여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모셔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분열세력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 국토완결과 민족통일의 기치하에 각계각층의 애국적인 사람들을 묶어세운 위대한 회합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교시는 바라볼수록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애국애족의 한생을 되새기게 해주어 격정을 금할 수 없게 한다.

탑신의 뒤면에 새겨져 있는 4월남북분열세력에 참가하였던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들의 이름들.

읽어보면 이름도 다르고 내세운 리념이나 활동목표, 소속인원들도 각이한 수많은 당들과 단체들이다. 당시 남조선에서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분열고정화책동에 매달리던 몇몇 반동적인 정당, 단체들을 내놓고는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평양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민족단합의 뜻깊은 장을 펼쳤던 것이다. 그만큼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온 겨레를 묶어세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품은 따사롭고 바다처럼 넓었다. 민족분열의 첫 기슭에서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구국방책을 론의하도록 하신 그 거룩한 손길에 이끌려 지난 수십년세월 얼마나 많은 남조선과 해외의 인사들과 동료들이 통일의 빛을 찾아 평양을 찾아왔던가.

대동국의 푸른 물결도 흘러온 력사의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전하는 듯 은구슬 뿌리며 출렁이고 솟아오른 통일전선탑도 그날의 사연을 길이 세울수록 모여들어 민족단합의 뜻을 굳게 지켜나가는 후대들에게 속삭여주는 것만 같다.

시간이 흘러 축섭을 떠나가는 나의 뇌리에는 통일전선탑의 숭엄한 모습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김현식



시아버지는 영화배우로서 자기의 삶을 빛내어주는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늘 연기훈련속에 살았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큰 거울을 한개도 아니고 세계적이나 사들여왔다. 그걸 가져오느라 땀까지 흘렸던 걸었다.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뜬 게 아니요? 당신이 이런 생각을 다 하구...》

시아버지는 이제야 머느리를 땀만 흘려나면 무엇이든 할 일을 하려가거나 부다하고 좋아했다. 하긴 남편과 머느리사이에서 끼워 늘 마음을 쓰던 시아버지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런데 놀랄게도 시아버지는 거울들을 모두 자기 방에 들여다놓고 하는거였다. 시아버지는 말할것도 없었고 나와 남편도 서로 마주보며 눈만 슬며시 흘렸다.

《아니, 당신 무슨 심술이요?》

그려가나말거나 시아버지는 거울 한개를 땀물 들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버렸다. 하느수없이 나와 남편은 남은 거울들을 하나씩 들고 줄레 줄레 따라 들어갔다.

거울들을 세 벽에 걸라놓게 한 다음에야 시아버지는 흠직한 웃음을 띠우며 말하는 것이었다.

《차침명동무, 이제부터는 이 거울로 연기를 립체적으로 비쳐보자는거요.》

《예?》

시아버지는 허를 끝갈 찾고 행여나 하고 기대를 가졌던 나는 호- 하고 한숨을 지었다.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아예 자기 방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 낮이나 밤이나 그곳에서 울러나오는 것은 무슨 고향소리와 너털웃음소리, 발을 팡팡 구르는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닳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시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때문이었다.

그 거울에서 개화장에 몸을 싣고 거드름을 피우며 다니는 이등박문의 걸음새도 완성하였고 병아리를 던치는 독수리같은 표정도 형상해내었다.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공이라는 열매가 차례지기마련이었다.

예술평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서 이등박문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것도, 예술평화 《전초선》, 《새 정권의 탄생》을 비롯한 여러편의 예술평화들에서 다양한 인물형상을 특색있게 창조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것도 다 시아버지의 이런 피라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아버지가 인생의 황혼기에도 왕년의 젊음을 잃지 않고 판목있는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보살피심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한때는 지난 기간 몸매에 인 도식적인 틀과 파장된 번기로 하여 영화배우로서는 전망이 없는것으로 평가받고 고인도 많았으나 시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없는것으로 보내달라고 제기했었다.

정작 영화배우를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서운함을 금할 수 없었고 한숨속에 잠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자기의 가슴속 고통을 헤아려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않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주체59(1970)년 5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 수기

# 어제날의 톨괄이군이 명배우로 (2)

조선2.8에 출연화촬영소(당시)를 찾았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군들과 창작가들에게 영화촬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장군님께서는 촬영소의 창작자, 예술인들의 명단을 료해하시다가 배우 황영일의 이름이 왜 없는가고 물으시었다.

촬영소일군들로부터 그 때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못사 운해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 동무는 예술평화 《성장의 길에서》의 매관자본가역도 완창해 창조하였다고, 그는 영화배우로서 전망이 있는 동무라고 하시며 배우단에 그 이상 있게 하고 영화배우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교시 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배우적재능을 보지 못하고 망랑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판목있는 영화배우로 될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 하시었다.

해당 일군을 통해 그이의 교시를 전달받은 시아버지는 너무도 놀랐고 감격하여 어린애마냥 울기만 했다고 한다.

시아버지가 새로운 젊음과 창작적열정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던 1970년 9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예술영화 《36호의 보고》의 창조과정을 지도하시기 위해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만나주시다가 시아버지를 알아보시고 《아, 황동무도왔구만.》라고 하시며 반

갑게 손잡아주시었다.

끝없이 호모하여마지 않았던 장군님을 만나보고는 너무도 당황하여 인사를 올림도 못하고있던 시아버지는 그이께서 이번에도 부정인물인 천대산대장역을 맡아하지 않았는가고 다정하게 물으시 여셔야 황황히 그렇다고 말 소드었다.

걱정과 기쁨으로 심장이 툭툭 뛰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속에서 영화의 천대산대장역에 대한 깊은 연구없이 결발립시의 역형상을 창조하였다고 생각하니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나무 랑함을 없애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역형상을 바로 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가르쳐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시아버지는 교활하고 음흉하기 그지없는 비적대장역인물의 내면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다.

그후 영화의 수정작업필름을 보아주시는 장군님께서는 촬영일동무가 연기를 확실히 잘한다고 높은 평가를 해주시 고 이듬해 12월말 예술영화 《보이지 않는 요새》의 두개필름을 보시었을 때에도 촬영일동무가 연기를 잘한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었다.

평범한 영화배우에게 돌려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시아버지는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내 위대한 스승이신 장군님으로부터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서 이등박문의 역을 맡아

할때 대한 가르치심을 받아 안았다. 이 마음에 내 무었도, 어떻게 다 보답할만 말인가? 내가 저 남조선에 그냥 남아있었다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지극지극했던 그 시절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 그럴수록 나는 불민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라도 잠들수가 없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늘 제책질한 시아버지였기에 비상한 열정을 쏟아부어 밤낮없이 연기훈련을 하였고 그 열정은 좋은 결실을 맺어 많은 예술평화들에 출연하여 자기 맡은 역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아버지에게 인민배우의 명예칭호가 수여된 소식을 친히 알려주시며 축하한다고, 늙지 말고 계속 좋은 형상을 창조하라고 뜨거운 고무도 해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은정어린 예술생활상도 보내주시었다.

하기에 시아버지는 대를 두고 보답해도 장군님의 은덕에 다 보답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의 뒤를 이을 자식이 없는것을 서운해 하곤 하였다.

다행히도 나의 만딸(황원희)이 후남 연극배우로 되었다.

련희가 배우로 된 것은 《엄마》, 《아빠》라는 말보다 먼저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외우는 《배우》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기때문일 지도 모른다.

두벌자식을 교와하는것은

## 뜨거운 동포애가 담긴 수재민 구호조치

1984년 8월말과 9월초에 내린 심한 폭우로 남조선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남북도,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심한 물난리가 났다.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해에 의한 인명피해는 근 350여명에 달하고 리재민수는 20만 7 500여명, 파괴된 살림집수는 3만 6 700여채, 유실돼물린 논은 6만 7 000여정보, 피해입은 농작물은 5만 4 000여t에 달하여 생사의 엄혹한 사태가 빚어졌다. 이 밖에 6km의 도로와 14만 9 000m의 제방이 류실되었다. 수해로 입은 재산피해액은 모두 771억 2 800여만원에 달하였다.

동족이 재난을 당한 소식에 접한 공화국정부는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동포애적인 구호의 손길을 뻗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친서없이 구호물자를 보내주어 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줄 데 대하여 교시하시었으며 위대한

아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이 사업이 빠른 시일안에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해당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

이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984년 9월 8일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수해지역 리재민들에게 쌀 5만석, 천 50만m, 세멘트 10만t, 의약품 14종에 759지함을 구호물자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측이 최정중계하여 발표한 리재민수에 비추어볼 때 5인가족으로 계산하여 가구당 쌀은 약 250kg(5가마니), 천은 약 17m 차례지는것으로 되며 세멘트는

약 3만톤의 살림집을 건설할 수 있는 량이었다. 의약품도 수해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량이었다.

또 미국이 준 《구호금》이 겨우 2만US\$, 일본의 《구호금》이 10만US\$에 불과한데 비하여 공화국정부의 구호물자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 800만US\$에 이르는 실로 막대한 량이었다.

이것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민족의 진정어린 동포애가 어떠한 《우방》의 《지원》보다도 비할바없이 깊고 뜨겁다는것을 뚜렷이 증시하였다.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뜨거운 정성과 동포애가 담겨진 구호조치가 실현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결정이 나온 때로부터 20여일동안에 성과적으로 계속되였다.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공화국의 구호조치가 실현된것은 민족분열사에서 처음 있는 일대 사변으로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견지에서뿐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의의 깊은 일이었다.

이처럼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구호조치는 유감스럽게도 순란하게 실현되지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1 800만US\$에 해당되는 막대한 구호물자를 받으면서도 료로로 하지 말고 바다로만 하자, 바다의 경우 항구는 한군데만 쓰자는 등 이리저리한 구실을 붙여 장애를 조성하였다. 또한 공화국의 구호조치를 《위장평화공세》이며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반공》대결을 고취하던 나머지 구호물자를 실은 북측의 차량과 선박들이 출발하게 된 때에는 《남진》의도를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비상경계》조치까지 하였다.

국제적으로 적십자사가 생기고 구호사업이 시작된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남조선당국자들처럼 구호조치를 두고 구호물자를 실어오지 않는 구호하는측이 구호하는측에 그렇게까지 트집을 걸고 비방중상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의 겨레인 남조선인민들이 겪는 재난과 고통을 덜어주려는 공화국정부와

인민들의 숭고한 동포애와 성의있고 참을성있는 노력에 의하여 온갖 장애와 난관이 극복되고 구호물자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가닿을 수 있었다.

이렇듯 분열의 장벽을 넘어 처음으로 구호물자가 전달된 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다.

구호물자의 전달과정은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동포애는 사상과 정견보다도 우위에 놓이는 숭고한 감정이 하나의 겨레가 단합하려는 지향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산 현실로 실증하였다.

참으로 민족사에 길이 전할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동포애적인 구호조치의 실현에는 온 겨레를 안아 보살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력력히 스며들어 있다.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전달사업은 통일을 갈망하는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평명을 불러일으켰다.

이 동포애적조치를 계기로 북과 남사이에는 전민적적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구호물자인 인도수사업의 실현은 북남간에 좁아졌던 정파적 차이가 제거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관문정현지에서 구호물자인 인도수정형을 본 한 외국 기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남조선수해지역 리재민들에게 보내준 구호물자량이 세계구력사의 최고기록으로 될 수 있는것은 김정일지도자의 힘이 대개같이 넓어지고 인민을 위하시는 그분의 신장이 뜨겁기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이 담긴 구호물자들을 받아안은 남녘인민들은 《이부의 옳은 정치와 민중들의 성의와 동포애의 정을 느꼈수 있다.》, 《김일성장군님은 언제나 이 남겨레들의 고통을 헤아리시 고 극진히 보살피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이시다.》, 《은혜는 대리적으로 세뉘어는 명언이 있다. 우리는 그분들의 하해같은 은혜를 대를 두고 길이 전해야 한다.》라며 격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최광혁

지지 않는다. (얼마나 기쁘면 저러실가!) 그러나 시아버지는 아쉽게도 귀여운 손녀가 배우가 되는것을 보지 못한채 우리들결을 떠났다.

그때 림종을 앞둔 시아버지가 마지막힘을 모아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눈에 삽삼하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가장 원하던 말을 남기고 간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부모들의 유자나 유언을 자식이 지켜가는것이 인륜으로 되어오고있다.

시아버지는 생의 마지막순간에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눈물에 자기의 마음속 당부를 담았다고 생각하였다.

《련희야, 이담에 크면 꼭 배우가 돼야 한다. 알겠냐?》 머무랄같은 까만 눈동자를 굴리며 복성스러운 손녀는 무작정 《응, 나 꼭 배우가 될래요.》라고 대답했다.

영화배우가 된지 알지 못하는 철없는것의 대답이었지만 시아버지는 기뻐서 《저 우리 손녀가 제일이다!》하며 녀름 안아올리었다.

평생이 무뚝뚝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미였던 시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너는 할아버지의 뜻대로 꼭 훌륭한 배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대로 베를어지는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고 통일의 그날이 오면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남녘의 동포

들에게 내가 바로 황영일의 손녀라고 소리쳐 자랑해야 한다.》

주체99(2010)년 4월 26일과 5월 8일 국립연극관에서 창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덕실역을 맡아한 동무가 그전에 조선2.8에 출연화촬영소 배우였던 황영일동무의 손녀라는데 연기를 생동하게 잘 한다고 과분한 치하를 해주시었다.

내 딸이 연기를 하면 얼마나 잘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시아버지의 뉘을 이어 보답의 한걸음 걸이갈 일임으로 가슴 불태웠기때문이었다.

그때도 장군님께서는 모든 성과를 배우들에게 돌려주시고 수습선전에 떠나간 감사를 추억해주시었다.

《아버님, 들으셨나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님을 잊지 않고계시었다.》

그렇다. 나라의 은덕에 대를 두고 보답하려는 진실한 마음, 바로 여기에 억만금에도 비하지 못할 진귀한 재부가 있고 명예도 있으며 값높은 삶도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국가의 배려로 품치수려한 대동방안에 우뚝 일떠선 원동형살림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다.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흐르는 불밝은 창가에서 나는 생각한다.

나의 시아버지뿐만이 아닌 공화국의 품에 안겨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뚫어놓는 진실한 마음에도 떠받들려 이 땅에는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강국의 새 아침이 기어이 밝아오고야말것이다.

원 숙(황영일의 머느리) (끝)



예술영화 《검사는 말한다》의 한 장면

굴종은 더 큰 화를 부른다

최근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일명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철회하라고 남조선당국을 더욱 몰아대고있다. 미국무성은 매일 같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상호협력의 상징》, 《협정의 종료는 북조선과 중국에 만 리의》,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는것이 미국의 리명》이라고 떠들며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얼마전에는 미국 무성 차관,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와 부차관보, 《방위비》 분담협상대표를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이 줄줄이 서울에 날아들어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를 련이 어 돌아치면서 남조선당국에 협정과 기결정을 철회하고 일남과의 관계개선을 나서라고 압을 가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방성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을 다그치고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방장관 에스퍼가 제5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를 계기로 곧 남조선을 행각하여 협정파기철회

를 강박하려 하고있다는 보도도 들려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은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가 철회되고 한일간의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파기결정을 재검토할수 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도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한미동맹관계가 약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불만과 압력을 누갓혀보려고 애를 쓰고있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일본이 변화가 없는데 미국은 당국에 련일 《지소미아》 파기철회를 압박하고있다. 《지소미아》 파기를 통한군사작전에 금을 내는것으로, 신속한 정보교류를 끊는것으로 보고있는것만큼 계속협정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할것이다. 《한》미일이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은 일본의 오만무례한 경제침략행위에 분노한 남조선민심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응당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의 군사적목적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남조선당국이 오만한 섬나라족속들에게 굴복할것을 강박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말끝마다 《군건한 한미동맹》을 떠들지만 실제로 제5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를 계기로 곧 남조선을 행각하여 협정파기철회

에 얽어매놓아야 할 전쟁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것은 이번 일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이런 굴욕과 하대를 당하고있기때문에 왜나라것까지 남조선을 우습게 여기며 갈수록 더욱 오만방자하게 높아대고있는것이다. 미국이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박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여 북침전쟁과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배를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미국의 야욕을 드러내놓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응당 민심의 강력한 요구를 따라야 할것이며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대일저자세를 취하다가가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대역죄를 짓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 굴종하면 할수록 남조선이 당하는 수치가 더욱, 우리 민족이 입는 피해가 커질뿐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진실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데 대한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지난 2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참사책임자들에게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죽고고소, 고발인내회》를 열고 《세월》호참사의 진상해명을 요구하는것은 민심의 요구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남조선의 검찰은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한당》이 높아대는 행태가 가관이다. 지금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검찰이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설치하자 《야당탄압》, 《황교안대표를 혼들려는 시도가 다시 나타나고있다.》며 발악적으로 반대해나서고있다. 따지고보면 지난 시기 《살아있는 권력도 당당히 수사해야 한다.》며 부정부패혐의를 제기해 있던 법무부 장관의 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있던 검찰을 추켜올려서우던 《자한당》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탄압》, 《정치검찰의 민낯》이라며 검찰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 설치결사반대하였다.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어제는 칭찬하고 오늘은 규탄하는 《자한당》의 추한 행동은 사람들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문제는 《자한당》이 지금 왜 태도를 돌변하여 검찰수사를 결사반대해나서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피지은자의 증색한 변명이고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세월》호참사의 공범자인 《자한당》으로서 특별수사단의 설치가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싸늘한 울가미로 느껴질수밖에 없을것이다. 다 아는것처럼 5년전인 2014년 4월 꽃망울도 채 피워보지 못한 나 어린 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백명이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목숨을 잃은 《세월》호참사는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반인민적인 박근혜파의 《정권》이 빚어낸 인재이고 그것이 여러해가 지난 오늘날도 진상이 가리워지고

있는것은 《자한당》을 비롯한 적폐무리들이 저들이 저지른 범죄가 드러날까봐 사건수사를 계속 방해해왔기때문이다. 여기에서 《공로》를 세운 인물이 바로 당시 법무부 장관과 후에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며 박근혜의 수족노릇을 하던 현 《자한당》 대표 황교안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해명을 요구하는 그들을 《시체장사군》이라는 막말로 비난으로 목살하던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세월》호참사진상조사위원회를 특별수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진보인사들을 반 《정부》인물로 몰아대기 위한 비법적인 동향장악책동으로 그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려 하였다하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 나아가 황교안은 《대통령》권한대행 때에는 《세월》호참사당시 박근혜의 7시강행적보고문서를 비롯하여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수만건을 《대통령》직접기록물로서 지칭함으로써 《세월》호참사의 진상해명에 장애를 조

성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가리우는데는 황교안뿐만아니라 당시 청와대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등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정부》가 거의 동원되었다. 여기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줄지에 잃어버리고 눈물만 흘리고있는 《세월》호참사유가족들앞에서 라면을 먹는 추태를 부리고 진상해명을 요구하는 그들을 《시체장사군》이라는 막말로 비난으로 목살하던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세월》호참사진상조사위원회를 특별수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진보인사들을 반 《정부》인물로 몰아대기 위한 비법적인 동향장악책동으로 그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려 하였다하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 나아가 황교안은 《대통령》권한대행 때에는 《세월》호참사당시 박근혜의 7시강행적보고문서를 비롯하여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수만건을 《대통령》직접기록물로서 지칭함으로써 《세월》호참사의 진상해명에 장애를 조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외치는 시민들

적폐청산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검찰개혁, 적폐청산을 위한 광주시민행동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9 일 광주시 금남로거리에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조별집회를 가지었다. 발언자들은 전두환과 같은 자들이 고개를 뺏겼어 처하고 황게치는것은 《자한당》 대표 황교안 등 적폐를 비호

하는 세력이 있기때문이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황교안이 《국무총리》직을 맡았을 때 제일먼저 전두환에게 취임인사를 하였다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세월》호참사수사를 방해하고 참사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자들의 뒤에도 적폐검찰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토착왜구당과 적폐

세력들이 일제의 경제침략사를 부정하며 일본의 경제침략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적폐청산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호소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금남로거리를 행진하며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본사기자**



박근혜 《정권》의 지떨리는 살인죄악을 고발하는 인양선 《세월》호

없는것보다 못한 당대표

요즘 《자한당》 대표 황교안의 꼴이 말이 아니다. 날이 갈수록 《자한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내계파싸움이 격화되면서 예상초 능력도 자질도 없는 황교안이 《자한당》을 깨게 망쳐놓고있는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와 그야말로 동네북신세가 되고있는것이다.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후 기고만장한 《자한당》패들이 《공로》를 세운 당소속 의원들에게 표창장대상품을 수여하는 늑골까지 공개적으로 벌러놓았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은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런가 하면 황교안과 원내대표 라경원은 《국회》관동사건에 련루되어 정치책임명기 위태로운 당소속 의원들에게 2020년 《총선》 후보로 추천될수 있게 《공천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면서 범죄자들을 적극 비호두둔하는 망동도 부렸다. 지어 《대여공세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현 당국자를 《별거벗은 입금》으로 풍자하는 동영상 만들어 유투브를 통해 전파하는 늑골까지 벌러냈다. 하지만 이것이 민심을 자

극하여 《자한당》의 추한 모습만 보여주고 지지불하에 이르러왔다. 바빠맞은 황교안이 직접 나서서 《당안에 신선한 피를 수혈하겠다.》고 하면서 내 놓은것이 《인재영입대상》 발표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인재》라고 고른 자들이 하나같이 박근혜관행을 반대한 국우분자, 적폐청산에 걸려들었던 부정부패분자들인것으로 하여 도리어 《비리전파자영입》, 《수구꼴통인사영입》이라는 비난속에 철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자한당》의 표창장, 《상금》 수여와 《공천가산점》 주기내용, 《인재영입》판대국이 황교안과 같은 정치저능이만이 고안하고 연출할수 있는 저속하고 치졸한 추태인것으로 하여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결과만을 가져왔던것이다. 황교안이 내든 《보수대통합》이라는것도 마찬가지로이다. 《자한당》이 비박계와 친박계로 갈라져 서로 물고뜯는 개개원들이 여념이 없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박근혜

파들은 보수우파들이 하나로 뭉쳐야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떠들고있는 반면에 친박근혜파는 박근혜관행에 동조한 세력파는 절대로 손을 잡을수 없다고 하면서 물아내고있다. 그런데도 황교안은 제가 마치 《보수의 구심점》이나 되는듯이 《보수대통합》을 운운하며 회맹케 늘어대고있으니 그야말로 꼴불견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결국 친박계로부터는 박근혜관행에 동조한 《배신자》로, 비박계에게서는 박근혜특동부역자로 비난받는 황교안 자체가 파벌갈등의 불씨로 되고있는것이다. 황교안의 《장외투쟁》 늑골도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황교안은 2020년 《국회》의원선거때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겠다고 하면서 반 《정부》 공세를 열을 올리고있는가 하면 민심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무조건 저

지하겠다고 하면서 《장외투쟁》을 벌러놓으며 소란을 피우고있다. 하지만 그 꼴이 꼭 치유불능의 《불통병자》가 틀림없는것으로 하여 《민생을 외면한 보이콧》, 《지도력부재의 민낯을 보여주는것》이라는 각계의 비난을 사고있다. 지어 당내에서까지 《장외정치》로는 당세를 확장할수 없다. 《제발 당대표가 평남지역에는 오지 말아달라.》는 불만을 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 형편이다. 능력도 자질도 없는 정치무능자는 황교안에게 《대권》 야망만 있는자가 응당 받는 대접인것이다. 지금 황교안을 저주하고 규탄하는 남녘민심의 목소리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대표자리에 버티고 앉아있으니 얼굴이 두꺼워도 이만저만 두껍지 않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세상에 황교안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는 아마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최근 남조선에서 병을 구실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있는 전두환이 남조선강원도의 어느 한 골프장에서 골프놀이를 하는 동영상 공개되어 사회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건강상의 구실을 대며 5.18광주인민봉기진압과 관련한 재판에 열광하던 내밀지 않던 전두환역도가 기력이 넘쳐 팔프놀이를 하는 장면과 광주학살과 관련한 질문에 과렴치한 케변을 늘어놓으며 후안무치하게 높아대는 장면, 아직 반납하지 않은 추징금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장면이 담겨져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죽음을 우물하는 후안무치한 작태》, 《광주학살죄행을 부정하는 살인마》라고 규탄하면서 전두환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 정계인사들도 전두환의 기만행위에 더이상 놀아나지 말고 법정에서 세워 력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전두환역도가 궤에 주된 《계엄군》을 내몰아 광주의 항쟁유사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대살륙작전을 벌려온 도시는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국악한 살인마, 살인피수라는것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광주인민봉기자들과 시민

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여 광주를 인간도살장으로 만든 치떨리는 모든 진압작전은 다름 아닌 당시 실제적인 권력을 들어쥐고있던 전두환역도가 직접 지휘한것이였다. 력사에는 파쇼살인범으로 악명을 떨친자들이 수도무려지만 전두환군사장제와 같이 비법적으로 권력을 차지해보려고 그렇게 끔찍한 인간대학살행위를 감행한 전례는 찾아볼수 없다. 오늘까지도 자기의 천인공노할 대죄악에 대해 전면 부정하다 못해 팔프장을 돌아치며 호의호식하고 학살의 진상규명과 살인자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을 참을수 없이 우롱하고있다. 력사의 죄인이 아직도 뼈저린 남조선사회를 활보하며 똥청대고있는것은 광주대학살만행을 외면하고 폄소시리는 살륙범죄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있는 《자한당》패

들의 정계를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분노에 이를 갈며 단죄하고있지만 유독 《자한당》 것들은 침묵을 지키며 꿀먹은 벼어리행세를 하고있다. 침묵은 동조를 뜻한다. 사실들은 역적패당이아말로 전두환군사파쇼도당의 후예들이며 그들이 권력을 다시 잡아 만들려는것이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고 죽이는 파쇼암흑사화라는것을 여실히 말해주고있다. 지금 《자한당》패들은 광주대학살행위의 진상을 한사코 가로막으면서도 역겨운 민심기만술음에 매달리며 보수부활과 세정권야합행위에 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여 재집권의 이발을 드려낸 군부파쇼살인마의 후예들을 그냥 둔다면 광주대학살행위의 진상은 언제 가도 밝혀질수 없다. 오늘도 잠 못드는 광주의 령혼들은 대학살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살인마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해달라고 절규하고있다. 죄는 지은데로 가가마련이다. 올해에도 《자한당》패거리들은 전두환역도를 《영웅》으로 공공연히 찬미하는 가하면 광주의 항쟁유사들과 희생자유가족들을 《폭도》로, 《피골집단》으로 모독하는 망인들을 서슴없이 내몰아 각계의 분노를 샀다. 이번 전두환역도의 골프동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남조선

일본집권층은 《조선사람들이 방화한다.》, 《조선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친다.》는 모략선전으로 민족적대립감을 고취하였으며 《조선인박멸》을 명명하여 2만 3 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각종 방법으로 잔인무도하게 학살하였다. 이번 전두환역도의 골프동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남조선



오래전부터 일본은 라틴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하여온것으로 하여 《왜구》, 《왜적》으로 불려왔고 문명수준이 낮은것으로 하여 《倭(왜나라왜)》 자대신 《矮(난쟁이 왜)》 자로 낮추어 지칭되기도 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에도 전법국의 군국주의부활세력이 강행하고있는 군사대화화과 재침야망, 민족배타주의의 저질스러운 행태를 보며 세인은 일본이 정치난쟁이라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고있다. 지난 10월 3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던 오끼나와현의 《수리성》에서 대형화재가 일어나 7개의 목조건물을 비롯한 수천㎡의 면적이 불에 완전히 타버린 사건을 둘러싼 일본국우익세력의 망동에서도 이를 알수 있다.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일본의 국우익세력들은 인터넷으로 《재일조선인인한 일이다.》, 《남조선사람이 불을 질렀다.》라는 글과 동영상들을 유포시켰고 《보복을 해야 분이 풀린다.》는 망발들도 꺼리낌없이 터져나와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노 10월 27일에는 일본의 나고야시가 전신공공시설물에 《범죄는 언제나 한국인》이라는 글이 함께 게재되었다고 한다. 도교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벌어지는 국우세력의 시위에서는 《조선사람을 대학살하자.》, 《조선녀성을

라는데서 조선유치원을 제하고있고 일본군성노예행위를 단죄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여러 나라에 세워지는것을 두고 앙양을 부리고있으며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방위백서에 빼앗기 써넣었다. **본사기자 박철남**

오늘날 일본에서 일어나고있는 여러 재해들을 놓고 《무조건 조선인》이라는 중요사상이 거침없이 퍼져나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는것이 이미 19세기에 《정한론》으로 봉건적특권을 빼앗긴 사무라이계층의 불만과 피눈을 칼을 조선침략으로 돌리고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조선인박멸》에 리용한 군국

주의선대들의 반인륜적책동과 무엇이 다른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집안에서부터 원인을 찾는것이 순리이다. 우리 민족과 아시아지역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끓는 침략전쟁을 《대동공영권》을 위한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하면서 사회와 배상을 거부하다 못해 죄집에서 일어난 범죄의 장본인까지도 내부에서 찾은 대신 무리대고 라틴족에게 혐의를 돌리며 혐오감을 조장하는 일본이야말로 인륜도덕도 량심도 없는 정치후진국, 정치난쟁이임이 틀림없다. **본사기자 김정혁**

공화국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끊임없이 비약하는 위대한 나라이다. 지금 공화국의 비약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오늘의 창조와 비약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뒤떨어진것을 개조하고 부족한것을 원만한것으로 바꾸어놓는 단순한 갱신만이 아니라 전혀 없던것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고 지난날에는 상상도 못하던것을 현실로 전환시켜 놓는 기적적인 창조와 비약이라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력사의 가장 장엄하고도 거창한 전진으로 되며 승리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승리로 된다.

70여년에 이르는 공화국의 력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자랑스러운 력사이

며 공화국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기적들은 다 빈터우에서 제법으로 새로운 자기의 것을 창조해낸 고귀한 전취물들이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오묘한 일체의 유적전쟁을 준비하시때 가지고계신것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뿐이

림속병기창에서 연길폭탄도 만들어낸 그 정신으로 공화국인민들은 《천리마》호프락으로와 《승리》호자동차, 《붉은기》호전기기관차도 자체로 만들어냈다.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강제정신, 성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적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있다.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세포지구축산기지를 비롯 한 기념비적창조물들, 인민경제 주체화, 현대화의 본보기들...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무에서 유를!

이것은 자기 힘을 굳게 믿을 때 그 어떤 불가능한 《무》에도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있다. 《무》의 수난자, 불가능의 노예가 아니라 맨손으로도 행복의 락원을 가꿀줄 알고 기적을 창조하는 용감한 개척자가 되자. 이것이 자력갱생대진군에 펼쳐나선 공화국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배정이다.

리전봉

###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위대한 나라

였다. 하지만 항일무장투쟁은 《창해일숙》이라고 했던 조선인민혁명군이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해방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을 창조하는 력사를 아로새겼다. 두자루 권총으로부터 무적 필승의 강군이 자라났고 밀

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를 비롯한 새로운 시대정신이 태어나 온 나라를 불도가마냥 들끓게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력사는 한겨울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애국의 력사로 더욱 즐기차게 흐르고있다.

일 마 전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성군 중평남새은실농장과 양묘장건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먼지만 흘리던 이곳에 수심정보의 현대적인 남새은실과 년간 2 000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양묘장이 일떠서고 은실농장과 양묘장의 종업원들이 살게 될 수백세대의 소출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 해외동포 조국방문기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9월 19일 아침 남천 룡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재중동포관광단일행은 압록강을 넘어 조국 땅 신의주역에 도착하였다.

렬차에 몸을 싣고 차창밖으로 가없이 되고 푸른 하늘이며 잘 정리된 논밭들, 산기슭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농촌문화주택들과 깨끗하고 문화적인 거리들에 심취되어있느니라 어느덧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20일 명칭시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는데 전세계가 우러러모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과 뜨거운 정성이 담긴 선물들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같은 인물은 없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웠다.



체육이 인민을 위한 사업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 누구나 체육을 즐겨하고 어디서나 체육열기로 들끓고있다. 날로 고조되는 대중체육열풍

### 우승컵을 받은 바드민턴, 정구애호가

여기는 풍치수려한 보통강변에 위치한 체육공원, 기자가 배구장이며 룡구장, 로락스체트장, 정구장 등 체육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이곳을 찾으니 대중체육을 하는 남녀로소들로 흥성이고 있었다. 공원의 한쪽에서는 배구경기가 한창인가 하면 그옆에서는 룡구경기를 하는 대



### 홍광옥

학생일대인들은 20대젊은이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녀가 하던 로락스체트를 타고 룡구라 웃고 떠들며 생생 내달리는 아이들도 많았다. 이곳에서 만난 공원관리원은 오늘날은 일요일은 물론 여느날에도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이후에 어른, 아이 할것없이 경쟁적으로 공원을 찾아 헤매고있다고 말했다. 관리원은 바드민턴경기를 하고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며 그가 바로 어느 한 중앙기관에서 일하는 홍광옥인데 짬만 있으면 이곳에서 바드민턴을 치곤 한다고, 열성이 보통이 아니라고, 지난

묘향산에 산에 산마다, 골짜기마다 향기가 그윽하여 산천경계가 아름다웠다. 보현사도 탑과 같은 민족문화유산들도 대로 보존되어있었다.

21일 아침 평양을 출발하여 그렇게도 가고싶었던 금강산에 도착하였다. 이른날 등산하러 금강산으로 오르는데 허리를 감도는 안개속의 산천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천하제일명산 금강산에 오르는 길은 평탄치 않아 서로 도와주면서 구룡포까지 올라갔다. 울창한 수림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맑고 푸른 물은 유유히 흘러내리고 바위는 울돌과 같은 빛깔이었고 물은 달고도 시원하여 그 맛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젊음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오후에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를 참관하면서 종합회관, 야외운동장, 수영장, 학생들의 로리실, 칩실 등을 돌아보았는데 세상에 부럽지 않은 야영생활을 하는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움과 찬탄이 겹친 터져 나왔다.

그날 밤 마시령스키장의 호

렐에서 하루밤을 묵고 이튿날 평양으로 출발하여 점심무렵에 천천히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4일 관문점을 참관하였는데 관문각에 올라 불련된 강토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아팠고 하루빨리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가다듬었다.

점심은 개성국수집에서 먹었는데 전통적인 조선식기와 집안에 차려놓은 20여가지의 늦그릇에 담겨진 음식은 옛날 왕궁의 식사를 방불케 하였으며 그 맛은 조선의 고유한 음식맛이었다.

오후에는 평양에 도착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호텔에서 방문하면서 조국을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의 생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이어 만경대학생소년궁전도 참관하고 교예공연도 관람하였다.

25일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는데 내부, 외부설계가 예술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독특하여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대중강변에 나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병원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불매의 생활력을 높이 청송하며 주체사상만이 장엄하게 세워져있었다.

우리일행은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형제적조국인민지원군열사들을 기념하는 우의탑에 생화를 진정하고 목상하였다.

이어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향기로운 꽃다발을 삼가 드렸다.

우리는 대학의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았는데 현대적인 설비와 교육기자재들이 그뿐이 갖추어진것을 보면서 감탄하였으며 일류급인재들을 키워내는 조국의 교육의 참모습을 보았다고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쳐들어 찬탄하였다.

울긋불긋 꽃들이 만발한 평양의 모란봉에 올라서서 참신한 풍경을 한껏 들이마시며 내 조국은 자연미 그대로 보존된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평양은 정말 멋있고 사람들의 정서도, 옷차림도 깨끗하다고 동포들은 연신 감탄하였다.

저녁에는 풍치수려한 룡라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를 관람하였는데 공연은 생기넘치고

젊음이 약동하며 대서사시적화풍으로 공연장을 황홀하게 하였으며 장내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조국에 체류하는 동안 평양의 자랑 옥류관을 비롯한 화려하고 문화적이며 이름있는 식당들에서 조국의 특색 있는 로리들도 맛보았다.

26일 조국을 떠나면서 평양지하철도를 타보았는데 매역의 내부장식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국은 모든것이 새롭고 평양의 거리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일떠서고있다.

경에 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며 만리마를 타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힘차게 내달리는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무한히 행복하고 감지스러웠다. 평생 추억으로 남을 조국방문의 날에 한해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내 조국의 참모습을 보았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은 앞으로더 영원히 주체의 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있을것이다. 재중동포 연합회 《인민의 나라》 2019년 10호에서 게재

## 민족전통음료 막걸리 공업적방법으로 대량생산

### —대 동강맥주공장에서—

우리 선조들이 즐겨 마셔 온 막걸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음료이다.

《막걸리》란 말은 문자 그대로 마구 걸러낸 술이라는 뜻이다.

막걸리는 고려시기에 박주, 백주라고 하였으며 고려후반기부터 탁주라고 불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력사기록인 《태종실록》(14세기말~15세기초)에 막걸리라는 표현이 처음 쓰여졌다.

이로부터 막걸리를 《농주》, 《농락》이라고도 불렀고 그밖에 회부연 액이라고도 불렀다고 하여 탁배기라고도 하였다.

오늘 공화국에서 막걸리는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종류의 하나로 되고있다. 간이매대, 식당을 비롯하여 그 어디서나 막걸리를 봉사하는것을 볼수 있다.

최근 대동강맥주공장에 민족의 전통음료인 막걸리를 공업적방법으로 대량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이 꾸러졌다.

얼마전 우리가 막걸리생산공정을 취재하기 위해 대동강맥주공장에 들어서니 2층으로 된 멋들어진 건물이 한눈에 안겨왔다.

우리를 맞이한 공장일꾼이 저 건물에서 막걸리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고있다고



알려주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실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에 높이 반기고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무궁화, 무진화가 훌륭히 실현된 막걸리생산의 공업화공정을 꾸려놓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2층에 있는 제곡실에 들러갔다. 제곡실에는 계량기, 돌분리기, 쌀세척 및 불기, 로라분쇄기, 혼합기, 자동제곡기 등 현대화된 여러 공정들이 그뿐이 갖추어져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현은희기술

준비원은 막걸리생산공정의 전 과정을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종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1층에 있는 막걸리 포장실에도 내려가보았다. 이곳에 들어서니 수직병성형기에서 실세없이 흘러나온 첫빛색깔의 수직병들이 호름선배아를 타고 다음공정으로 넘어가고있었는데 볼수록 멋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알콜농도가 3%, 5%, 7%인 막걸리들을 생산하고있었다. 막걸리를 정상적으로 마시면 만성위염이나 소화불량증, 동맥경화증, 만성관절염을 비롯한 질병들을 예방치료할뿐아니라 미용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금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된 막걸리는 시원하면서도 맛이 좋고 보편성이 좋아 인기제품으로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대중 체육활동의 앞장에 선 애호가들

《뜻깊은 전승절에 승리의 소식을 전해들으니 가슴이 막 벅차오르오. 우리 나라를 강대국으로 흥하고 체육으로 개화한 나라로 만드느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체육사업에 우리 가정이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되어 체육인들을 위한 후원의 길에 나선 홍광옥이었다. 체육선수들을 찾아 그들의 훈련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도 안겨주고 국제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을 뜨겁게 고무도 해주었다.

후원사업에만 그치지 않았다. 정구선수들을 찾아 이 야기를 한데는 파견서 훈련과 정구를 함께 치면서 훈련열의를 북돋아줄 생각을 한 그는 짬시간을 리용하여 정구기초기술을 열심히 익혀나갔다. 여러가지 사업으로 바쁜 속에서 정구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아야 하는 그여서 정구기술은 몰라보게 높아졌다.

얼마후 홍광옥은 정구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평시에 련마한 정구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선수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고 묻는 선수들에게 홍광옥은 하자고 대답한 하면 못해낼일이 없다며 선수들의 정진력을 적극 불려일으켰다.

그의 집에는 정구와 바드민턴경기에서 받은 우승컵과 금메달들이 빛을 뿌리고있다. 그 자랑드높이 체육인

들에 대한 후원사업에서나 대중체육활동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있는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불같은 사랑》, 《열정적인 체육애호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못하는 구기종목이 없는 여성체육애호가

취재길을 이어가던 기자는 배구와 정구, 탁구 등 못하는 구기종목이 없는 못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한 체육애호가녀성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란봉구역 고려약공장 노동자 리성숙(50살)녀성이었다.

라를 안기는 선수들, 하지만 상대팀의 방어도 만만치 않았다. 그물을 넘어온 공을 자유방어수가 날째 받아 가운데로 런락하자 런락수가 그물우로 높이 띄워주었다. 그 순간 조약하며 빠른 강타!... 공격수의 능숙한 타격솜씨에 런락을 금지 못해하는 배구장일꾼이 저 선수가 배구를 잘하기로 공망적으로나, 구역적으로 소문난 리성숙 종업원이라고, 그가 배구장에 나서면 언제나 두각을 나타내곤 한다고 말해주었다.



### 리성숙

지난 10월 13일 체육절이었다. 이날 취재차로 모란봉구역 고려약공장을 찾은 기자는 공장종업원들의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보게 되었다. 경쾌한 음악선율이 맞추어 유연하면서도 힘있게 대중물동체조를 하는 종업원들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왔다. 마음도 술겉도 동작도 모두가 하나같았다. 이어 배구장을 찾으니 열기된 응원속에 배구경기가 한창 고조를 이루고있었다. 잘 짜인 2, 3인결합으로 강

고있다. 그런 흥광력의 모습에서 기자는 청춘의 활력에 넘쳐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야하리라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은 지난 5월에 진행된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 정구혼성복식경기에 참가하여 예선경기로부터 결승경기에 이르기까지 맞다든 선수들을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겨 관망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대중체육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종업원들에게 배구와 탁구, 정구 등을 배워주기도 하는데 이 에게서 배운 종업원들이 이제는 공장의 한타하는 선수들로 자라났다는 것이었다.

마라손주요에 나선 년로자들

얼마전 평양에서는 2019년 가을철마라손애호가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조선, 중국, 로씨야, 도이쉴란드, 벨스까,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애호가들과 선수들이 참가한 경기대회는 마라손, 반마라손, 10km달리기, 5km달리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런 경기대회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마라손주요에 나선 공화국의 년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가운데는 올해 63살인 평안북도 염주군 통산리에서 살고있는 구문호로인도 있었다. 한창나이에 마라손애호가경기대회에 여러 번 참가하여 순위권에 입선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그는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매일 아침 달리기로부터 하루 첫 일과를 시작하고있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리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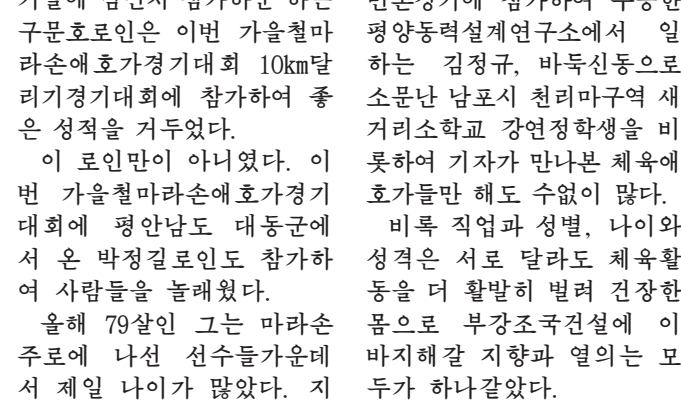
통구감독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구기종목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학교체육소조에도 남 먼저 들어갔던 리성숙은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된 후에도 운동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를 닮아서인지 6살때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공을 가지고 놀던 둘째아들이 지금은 전문체육단에서 추지선수로 활약하고있다는 것이었다.

기자와 만난 리성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체육을 좋아합니다. 배구, 정구, 탁구, 룡구를 비롯하여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허전해서 못 견디답니다. 운동은 저의 생활에서 한 시도 떼어놓을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 ※ 이밖에도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 탁구경기에서 멋진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여 깊은 인상을 남긴 대외건설지도국 노동자 리명식, 전국체육대회중체육대회—2018에 평양시팀을 대표하여 바드민턴경기에 참가하여 우승한 평양동력설계연구소에서 일하는 김정규, 바드민턴으로 소문난 남포시 천리마구역 새거리소학교 강연정학생을 비롯하여 기자가 만나본 체육애호가들만 해도 수없이 많다.

※ ※ 비록 직업과 성별, 나이와 성명은 서로 달라도 체육활동을 더 활발히 벌려 건강함을 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지향과 열의는 모두가 하나같았다.

본사기자 홍범식



2019년 가을철마라손애호가경기대회의 한 장면

# 관심을 모은 특색전제 및 가구제품들

특색전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의 현실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문명하게 생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특색전제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얼마전 평양에서 제2차 평양국제특색전제 및 가구전람회 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람회에는 조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50여개 회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우수한 특색전제들과 다양한 용도의 다양한 가구들과 과학기술자료를 출품되었다.

참관자들로 흥성이는 전람회장은 막 들어온 전시대들과 특색전제 및 가구제품들로 하여 참으로 볼만 했다.

전람회장에서 만난 박용식 조선국제전람회 사장은 이렇

게 말하였다.

《이번 전람회는 특색전제와 가구공업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경제무역활동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다.》

10여종의 특색전제제품을 출품한 선광무역회사에서는 업무, 가구나와 같은 천연나무를 리용하여 여러 종류의 가구제품들과 나무문, 부엌가시제품들을 내놓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창국설계원의 말에 의하면 이 회사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와 자재대신 국내산 원료로 제품생산을 진행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번 전람회에는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에서는 음이온을 리용한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내놓았다.

음이온은 사람들의 건강에 독특한 효능이 있는것으로 하여 《풍기비타민》이라

고 불리우고있다. 건강증진의 열쇠, 21세기 건강물질로 불리우는 음이온은 사람들의 피로회복, 장수로비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이곳 회사에서 내놓은 특색형음이온배게, 특색형공기음이온발생기, 특색형음이온천, 음이온신발갈개 등 제품들 가운데서도 특색형공기음이온창가림천은 실내공기를 정화하고 인체의 체액의 산성화를 방지하는것으로 하여 인기가 높았다.

이곳 회사의 박석희설장은 특색형공기음이온창가림천은 특색정화기술을 리용한 특허제품이라고 하면서 이 제품은 음이온방출, 먼지적신방출, 생물진류를 방출하는 기능성천으로 제작되었다. 음이온은 호흡기로 25%, 피부로 75% 흡수되며 먼지외선은 피부의 깊이까지 침투된다고 말하였다.

이뿐이 아니었다. 파우지들을 재생하여 나온 수지원료를 가지고 섬유종의

평양교원대학부속 광복소 학교에서는 소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31개 과목의 전자교수안을 개발하였고 평양천구역 미래소학교에서는 소학교 과외학습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수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나라의 교육사업전반을 더 한층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 김장 담그기

우리 민족의 겨울맛이 풍속 가운데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김장을 담그는것이다.

김치는 조선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부식물의 하나이며 민족음식 가운데서 가장 특색있다.

우리 선조들은 한해농사를 끝내고 겨울을 맞는 음력 10월경에 김장을 담그었는데 이때를 김장철이라고 하였다.

김치는 겨울철의 절반 량을 차지하는 김장담그는것을 일년중의 큰일로 여기었으며 여기에 많은 품을 들였다.

여름에 마늘을 캐서 잘 보관하는 한편 짓갈준비도 그 때부터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장담그는 배추, 무우, 가지 등이 나오는 김장철을 맞이하면 독을 준비하고 김치국을 파는 한편 남새를 썰고 양념을 버무리고 독에 넣는 일에 온 집안이 떨쳐나 모두가 부지런히 일손을 놀렸다.

특히 김치맛은 녀인들의 솜씨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녀인들은 김치를 맛있게 담그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치는 오래동안 전해져오

면서 그 조리방법이 끊임없이 발전하였으며 종류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하여 김치의 종류가 17세기에 34가지였던것이 18세기에는 60여가지로 늘어났다.

대표적인것만 꼽아도 통배추김치, 동치미(통무우김치), 석박지(씨레기김치), 보쌈김치, 깍두기, 갓김치 등이 있으며 그밖에 무우청김치, 나박김치, 가지통김치, 어육김치, 전복김치, 죽순김치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교육기관에서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으로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대학들과 공작대학들에서 8 600여개에 달하는 학과목들의 교수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 정보화하고 10만 7 000여건의 전자교수안을 완성함으로써 교수내용개선에서 큰 전

진이 이룩되었다.

평양교원대학에서 어린이 교육용로봇을 리용하여 지능을 개발시키는 교수방법, 두뇌개발에 효과적인 주산술

술련합토론회를 20여차 진행하면서 교수내용들을 협의하고 새 교수방법과 최신과학기술자료를 보급 등을 진행한것은 사범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지금까지 130여개 대학들에서 많은 교수방법들이 창조되었고 그중 110여건의 우수한 교수방법들이 전국

대학들에 도입일반화되었다. 보통교육부문에서도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창조 도입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평양제1중학교와 서성구역 와

본사기자 김혜성

##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교수방법들 창조

## 은행나무와 그 리용 가치

은행나무는 중생대 백악기까지 번성하였던 식물들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산화석식물이다.

은행나무는 양치바른 곳에서 잘 자란다. 은행나무에는 살균, 살충성분이 들어있어 갖가지 벌레의 유충과 식물에 기생하는 곰팡이, 비루스를 죽이거나 억제한다고 한다.

은행나무는 나무모양이 좋고 잎모양이 특수할뿐 아니라 가을에 아름답게 단풍들며 생활력이 세다.

은행나무는 수령이 1 000년이상이며 200~300년까지는 빨리 자라고 그후부터는 더디게 자란다.

목질이 치밀하고 색이 고투며 가볍고 가공하기 쉬우므로 건축, 가구, 조각, 세공재로 쓰인다. 나무껍질의 코르치올은 병마개를 만드는데 쓰인다.

에로부터 은행씨를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멈추는데 쓰이는 약재로 널리 리용하여왔다. 은행나무잎도 고려약재로 쓰이고있다.

금야은행나무, 인천영운은행나무, 풍악산은행나무 등 여러 은행나무가 공화국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보존관리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나무모양도 고투며 벌레

가 지지 않는 은행나무를 가로서 많이 심고있다.

본사기자



국가지정자연기념물 성관관 은행나무

## 손말학습프로그램 《우리 동무》(1.0)

최근 공화국의 국가정보화국 중앙정보화품질연구소에서 조선통령경제문화교류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와의 협력밑에 창작자들과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말배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손말학습프로그램 《우리 동무》(1.0)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에서 리용하는 손말단어들을 3차원동화상으로 생동하게 학습할수 있게 하고있다.

그리고 학령전 및 학령초각장애자들이 단어의 의미를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관적인 그림자료들을 많이 주었으며 동어의, 반의어 등 관련어들도 함께 학습할수 있게 하였다.

지능손전환기가 판형컴퓨터에서 활용할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각도에서

## 중세동방미술의 걸작 고구려무덤벽화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은 중세동방미술의 정화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지금까지 고구려벽화무덤은 알려진것만 해도 100여기에 달한다. 여기에는 당대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생활풍습 등 다양한 소재와 풍부한 내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그림들이 그려져있다.

벽화는 대부분 자연들로 쌓은 무덤벽면에 회축을 매고 하얗게 바른 후에 그리기도 하고 리석은 화강석이나 대리석을 잘 다듬어 만든 통돌벽면에 그렸는데 주제내용에 따라 크게 인물풍속도와 사신도, 장식무늬로 구분된다.

인물풍속도무덤부터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 덕흥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 등에는 왕의 행차를 형상한 행렬로부터 전두장면들, 야장일, 배짜기, 사냥과 같은 경제생활그림들, 씨름, 수박희, 활쏘기경기 등 무술경기장면들, 환상적인물그림들, 건축물, 장식무늬, 천체그림, 자연풍경 등 크고 작은 주제의 인물풍속화들이 다양하게 그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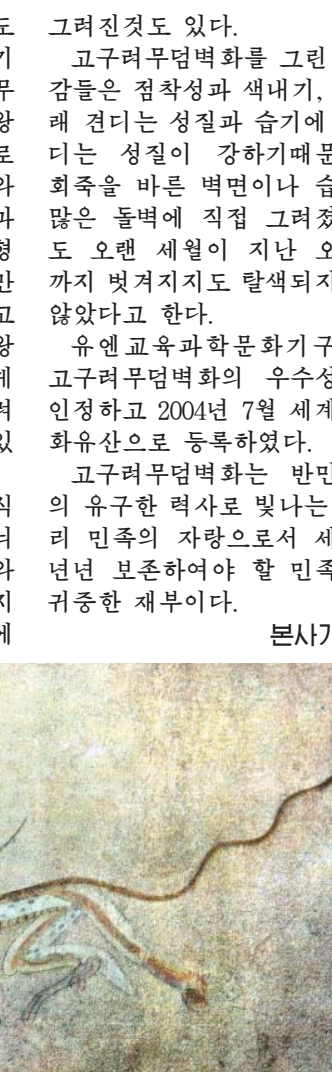
그러한것도 있다.

고구려무덤벽화를 그린 색감들은 점착성과 색채가, 오래 견디는 성질과 습기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기때문에 회축을 바른 벽면이나 습기 많은 돌벽에 직접 그려져오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벗겨지지도 탈색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고구려무덤벽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2004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고구려무덤벽화는 반만년의 고유한 력사로 빛나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세계년년 보존하여야 할 민족의 귀중한 재부이다.

본사기자



## 사화

## 만리이역에 가서... (1)

글 조허림, 그림 리성일

류달리 사냥고 번덕했던 저울도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어느날 송석은 기다리던 봄빛을 찾아 집을 나섰다.

봄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나 벌써 말쑥한 잔디밭에 파릇파릇 숙익이 눈을 뜨고 풍달새는 하늘높이 솟아올라 목청껏 우짖었으며 소먹이는 아이들의 피리소리는 구성지게 들려왔다.

송석은 하늘땅에 넘친 따뜻한 봄기운에 취해 발길을 따라 이리저리 거닐다가 종로거리에서 들어섰는데 문득 뒤에서 누군가가 《거기 가는데가 송석 아니시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송석이 걸음을 멈추고 흘깃 돌아보니 뚝딱에도 전부러 가까이 지내던 춘파라는 친구가 반가운 미소를 띠우고 서있지 않는다.

춘파는 송석의 손목을 잡고 앞장을 서서 뒤따라오는 조용한 주막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자, 송석. 이리 앉시오. 참 오래간만이요.》 하며 자못 기분좋은듯 곱곶 웃으며 술상을 청해내

다가 권하는것이였다. 잔이 오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쌓였던 회포를 나누는데 춘파가 말머리를 돌려 기실은 자기가 오늘 송석을 꼭 찾아가려던 참이라고 하였다.

《다른게 아니라 저 춘파(랑반과 상인의 중간에 속한 계층들이 사는 촌)에 사는 상당히 행세하는 흥도사(도사는 벼슬의 한가지)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 이웃나라에 가는 사신의 수반으로 북경에 가게 되어 그 걸음을 한몫 보려고 흥도사를 비롯하여 귀한 물품을 많이 준비하는중이요.》

여기까지 말하곤 춘파는 무슨 긴하고 중한 말이라도 하듯 송석쪽으로 가까이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좀 낮추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도 생각이 좀 깊은 사람이라 부채에 그림 하나를 잘 그려 가지고 가서 명필, 명화가가 많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에도 이런 대가가 있다는 자랑을 한번 하려고 나를 믿고 그 그림 한장을 받아달라는것이요. 그래서 내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송석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기뻐하며 꼭 흔쾌히 받아달라는것이요. 그러니 수고스럽지만 송석이 한장 그려주어야 하겠소. 어쨌든 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 하게 말이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에서 볼 때는 반드시 좋은 선물을 가지고 나올게요.》

송석은 춘파의 이야기가 천만뜻밖이었다.

춘파의 간곡한 청을 잠잠히 들으면서 (미숙하지만 내 화필로써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기백과 긍지를 한번 보여주자.)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원체 겸손한 사람인지라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그 나라에 명인들도 많을터인데 내 그림을 가지고 가서 나라명신이나 시키지 않겠는가?》

춘파는 손을 뉘뉘 내저으며 다시 간청하는것이였다.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내 생각엔 송석의 그림이 그 나라에 가서도 그림이 명신화할 그림이 아니요. 천만에 말이지, 송석은 그림그리는 솜씨도 특출하지

## 만 그림에 대한 그 높고 뜨거운 열정을 그 어떤 화가도 도저히 따르지 못하오. 송석이 한번 마음만 먹고 그리면 야 아마 그 나라 사람들도 깜짝 놀랄거요.》

《그렇가? 어디 한번 해볼가.》

이렇게 합의 되어 송석은 부채에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다.

며칠후에 비단폭부채와 함께 화구값으로 넉넉히 돈 열량을 보내왔다. 그 돈으로 송석은 장은 붓과 채색, 벼루 등을 장만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았다.

송석은 여러날을 두고 물가에 드러나며 물세 한마리를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물



나는데 특히 그는 나비와 풍경의 명수였다.

그런데 마침 체질이 봄인지라 한창 무르익는 봄풍경을 그릴수 있고 꽃과 나비, 솔과 대도 그릴수 있었다. 그러나 송석은 이웃나라사람들이 본다는것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그림을 하고 화제에 대하여 고심과 탐구를 거듭한 끝에 사월 초순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붓을 들었다.

## 새의 날씬하고 고운 모습과 아름다운 색채 등을 실물 그대로 이모저모 보고 연구한 끝에 붓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잠겼다가 하루에 한두선이나 점을 그렸고 물세의 동과 머리와 배의 그 굵고 신비한 색을 찾아내기 위하여 끼니를 넘기는 때도 있었다. 그러한 때에도 그의 얼굴과 눈은 피로보다도 오히려 전에 볼수 없었던 화기와 영채로 빛났다. 그림은 붓이나 채색으로가 아니라 이러한 탐구와 고심과정에 생기는 화열의 힘으로 그리는데 모양이었다.

송석은 붓을 든 날로부터 여섯달만에 바로 흥도사가 북경으로 떠나게 된 전날에야 그림을 완성하였다.

부채를 찾으러 온 흥도사에게 송석은 정중한 어조로 이러한 뜻있는 말을 하는것이였다.

《내편은 정성껏 그렸소이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은 이 부채를 언제든지 한꺼번에 다 펴지 말고 절반씩만 펴시오이다. 나도 확실한 자신은 없지만은 이 부채를 한꺼번에 다 펴면 여기에 그린 물새가 생기를 잃을 녀려가있소이다.》

흥도사가 화가에게서 이런 식의 신묘한 말을 듣는것은 그의 사십평생에 처음이였다.

## 새의 날씬하고 고운 모습과 아름다운 색채 등을 실물 그대로 이모저모 보고 연구한 끝에 붓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잠겼다가 하루에 한두선이나 점을 그렸고 물세의 동과 머리와 배의 그 굵고 신비한 색을 찾아내기 위하여 끼니를 넘기는 때도 있었다. 그러한 때에도 그의 얼굴과 눈은 피로보다도 오히려 전에 볼수 없었던 화기와 영채로 빛났다. 그림은 붓이나 채색으로가 아니라 이러한 탐구와 고심과정에 생기는 화열의 힘으로 그리는데 모양이었다.

송석은 붓을 든 날로부터 여섯달만에 바로 흥도사가 북경으로 떠나게 된 전날에야 그림을 완성하였다.

부채를 찾으러 온 흥도사에게 송석은 정중한 어조로 이러한 뜻있는 말을 하는것이였다.

《내편은 정성껏 그렸소이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은 이 부채를 언제든지 한꺼번에 다 펴지 말고 절반씩만 펴시오이다. 나도 확실한 자신은 없지만은 이 부채를 한꺼번에 다 펴면 여기에 그린 물새가 생기를 잃을 녀려가있소이다.》

흥도사가 화가에게서 이런 식의 신묘한 말을 듣는것은 그의 사십평생에 처음이였다.

## 에 국문 화운 동가 박은식

인 언론, 출판기관과 정치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반일투쟁을 탄압하자 그는 이웃나라로 망명하였다.

3.1인민봉기 때에는 간도, 베이징, 상해 등지에서 조선인청년학생들을 발원하여 국군등으로 적극 불려일었다.

그후 《상해임시정부》에서 일정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민족주의자들의 파쟁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그는 부르조아민주주의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벌이지 못하였으나 당시 민족주의운동자들에게 준 영향은 매우 컸다. 저서로는 《리순진전》, 《간곡지》, 《발해사》 등이 있다.

본사기자

## 술이 원수이기

술을 몹시 즐겨 마시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술은 건강에 해롭다고 충고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조상들이 술때문에 들어갔으니 술은 내게 원수요. 그러니 어찌 술을 삼켜버리는것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소!》